

조선시대 직령의 유형과 특성

이 주 영* · 권 영 숙**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강사*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ype and Characteristics of Jikryung of the Chosun Era

Joo-Young Lee* · Young-Suk Kwon**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3. 2. 24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Jikryung and to look into formative · periodic Characteristics. Results of analyzing can be described as follows.

1. Jikryung in the Chosun Era was classified according to whether it had a side hem. Jikryung which had side hem was reclassified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side hem into inside, inside and outside and outside fold types and backward leaning type. Jikryung with no side hem was reclassified into types of closed and opened sides.
2. Concern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the type of inside fold was coexisted with the types of short front and long rear, the same front and rear, and narrow sleeves, bean chaff typed sleeves. Inside and outside fold type was used the type of short front and long rear, narrow sleeves. Outside fold type was used the type of same front and rear, bean chaff typed sleeves. Backward leaning type was used the same front and rear, wide sleeves. The types of closed and opened sides transformed from double Sup to single Sup and from narrow sleeves to bean chaff in its form and wide sleeves.
3. Concerning periodic Characteristics, the 1st period of Jikryung with side hem showed up the type of inside and outside fold, the 2nd period did the type of outside fold, The 3rd period did the type of backward leaning. Regarding Jikryung with no side hem, its 1st and 3rd periods saw the type of closed side , while its 2nd period coexisted with the types of closed and opened sides.

Key words : Inside fold type(안주름형), Inside and outside fold type(안팎주름형),
Outside fold type(밖주름형), Backward leaning type(뒤젓힘형),
Closed side type(옆막힘형), Opened side type(옆트임형)

I. 서 언

直領은 문자 그대로 ‘곧은 깃’이라는 의미로서 깃양식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독립된 하나의 袍制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독립된 포제로서의 직령이라는 명칭은 고려말 우왕 13년(1387) 6월에 官服을 개정할 때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직령은 위 관복개정 당시에는 서인과 천인계급의 관복으로 규정되었지만 이후 조선시대에는 왕 이하 천인계급에 이르기까지 그 신분에 따라 四禮服, 常服, 便服 등으로 다양하게 착용되어 17세기 전반 이후 도포가 보편화되기 이전 까지 대표적인 편복 포제였다.

직령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직령의 용도와 형태에 대한 문헌 중심의 연구¹⁾와 함께 출토 직령을 중심으로 직령의 치수와 구성법을 제시하거나²⁾ 직령의 유형을 분류³⁾하는 등 실증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직령의 형태에 대해서 《畫永編》(1805~1806)과 《朝鮮常識》(1948)의 기록에 근거하여⁴⁾ 직령을 관복인 단령과 깃양식만 다르고 다른 부위의 형태는 동일한 의복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고, 그 결과 사각형의 옆자락이 있는 직령만이 직령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현존 유물 중에는 오늘날의 두루마기와 같이 삼각형의 무가 달려 있으면서 그 외의 부분은 사각형의 옆자락이 있는 직령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도 직령의 유형에 포함시켜 직령의 유형분류를 재검토하고 나아가 구성상의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분류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자료를 중심으로 직령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과 유형의 시기별 특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시기구분은 직령의 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조선시대를 세 시기로 나누고자 한다. 제1기는 건국 초부터 16세기 전반까지, 제2기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제3기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이다.

연구방법은 현존하는 복식유물자료와 회화자료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복식유물자료는 실측고찰과 출토복식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II. 유형 분류

1. 유형분류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직령이라고 하면 깃양식이 직령교임이면서 단령과 같이 옆자락이 있는 형태를 직령이라고 하여 왔다. 이러한 형태를 직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 통념으로 되어 있고, 그의복명 마저 관복으로 착용되었던 단령과 깃양식을 제외한 모든 형태가 같다고 하여 ‘관복형직령’이라고 칭해지고 있다.

그런데 유희경, 김문자, 권영숙은 오늘날의 두루마기와 같이 옆자락이 없으면서 양 옆에 삼각형의 무가 있는 형태 또한 직령으로 보았고, 특히 옆자락이 없는 직령이 입란 이후에 창의와 주의로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⁵⁾ 또한 일부 학자들도 출토유물을 다룬 보고서에서 이를 직령포, 동방형 두루마기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이를 문헌과 유물을 중심으로 체계화시킨 논문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옆자락이 없으면서 양 옆에 삼각형의 무가 있는 형태 또한 직령의 유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두루마기와 같은 형태의 의복을 직령이라고 제안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周衣와의 관계이다. 주의는 직령교임에 착수이며 옆자락이 없으면서 아래자락이 두루 막혀있는 형태로서 조선시대 최후의 포제로 남아 오늘날까지 두루마기라는 명칭으로 착용되고 있는 포제이다. 주의는 문헌 기록상 영조의 실재궁의대에 狹袖周衣⁷⁾라고 하여 처음으로 언급되고, 이후 정조의 습의에도 周衣⁸⁾라는 명칭이 보이며, 현존하는 最古의 주의 유물이 17세기 후반의 홍우협(1655~1691)의 주의 3점인 점에 비추어 17세기 후반부터 보편

화되었던 의복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임란 이전에 이미 주의와 같은 형태의 의복이 출토되고 있어 그 의복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주의라는 명칭이 영조대에 처음으로 언급되고 유물 또한 17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임란 이전에 있었던 주의와 같은 형태의 의복을 주의라고 칭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에 옆자락이 없는 직령이 임란이후에 창의와 주의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옆자락이 없는 직령과 창의, 주의의 시기별 출현 양상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에 의하면 각 유물들의 출현시기는 옆막힘형 직령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옆트임형 직령, 옆트임형 또는 뒤트임형 창의, 주의의 순임을 알 수 있다. 즉 옆막힘형 직령은 제1기부터 제3기까지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고, 옆트임형 직령은 16세기 후반에 출현하여 옆막힘형 직령과 함께 착용되다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그 출현예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17세기 후반부터는 옆트임형 또는 뒤트임형 창의 출현이 두드러지고 주의도 등장하게 된다.

한편 옆막힘형 직령은 전시기에 걸쳐 출현하는 반면 옆트임형 직령은 17세기 후반 창의가 출현함

<표 1> 옆자락이 없는 직령과 창의, 주의의 시기별 출현 양상

시기구분	착용자(생몰연대)	연대별 유형 분포				
		1400	1500	1600	1700	1800
제1기	고운(1479~1530)		①			
제2기	정휴복(1529~1604)		②			
			②			
			②			
	고여우(1560~1640)		①			
	김덕령(임란직후)			①		
				①		
	전박장군(임란직후)			②		
				②		
제3기	김 위(임란후)			②		
	정양우(1574~1647)			①		
				①		
				②		
	광해군(1608~1624)			②		
	김덕원(1634~1704)				③④	
	최숙(1636~1669)				③④	
	홍진중(1649~1702)				③④	
	안동人(1670년대)					③
	이단하(1680년대)					③
	홍우협(1655~1691)					③④ ⑤
	홍감보(1699~1763)					③④
	이화女大(1724년대)					③④
	숙명여대(18세기)					③
홍희준(1761~1841)					①③	
영친왕(1897~1970)						⑤
창덕궁소장 주의						⑤
고북남소장 주의						⑤

①: 옆자락이 없는 직령 중 옆막힘형 ②: 옆자락이 없는 직령 중 옆트임형 ③: 옆트임형 창의
④: 뒤트임형 창의 ⑤: 주의

에 따라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옆트임형 직령이 창의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무나비와 트임의 치수변화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옆트임형 직령은 16세기 후반에는 무나비가 20~30cm 정도이고 옆트임이 옆선의 1/2 정도지만⁹⁾ 17세기 전반에는 무나비가 15cm 정도로 줄고 트임길이도 길어진다.¹⁰⁾ 17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무 없이 옆선 전체가 트여진 형태가 출현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의복이 바로 창의인 것이다.

요컨대 창의는 옆트임형 직령에서 비롯된 것이고, 옆트임형 직령은 옆막힘형 직령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결국 창의의 모체는 옆막힘형 직령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의의 출현배경에 대해서 보면 최남선은 “『두루막이』라 함은 雨衣의 幅을 쪽도라가면서 다 막은 것이라 함이니 대개 넷날 男子의 옷옷에는 兩脇下에 『무』가 업시 開通된 것과 『무』가 잇서 縫合한 것과의 二種이 잇슴으로 兩脇下가 터져 三幅이 따로도는 창옷이란 것에 대하여 두루막이는 곧 雨衣가 휘돌아서 다 막힌 것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 두루막이와 창옷과는 똑가치 소매 좁은 옷이로대 엮구리가 一開一合한 점에서 分別이 잇스니 필시 창옷으로부터 두루막이의 次序로 발달되야 온 것일 듯하다”¹¹⁾고 하여 두루막이 즉 주의가 소매 좁은 창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주의는 창의의 옆트임을 없애고 두루막은 형태로써 제1기의 옆막힘형 직령과 형태면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주의와 옆막힘형 직령이 형태상 동일하기는 하지만 주의의 출현시기가 17세기 후반보다 앞선 시기까지 나아간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주의의 출현배경을 간파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즉 창의에 대한 비판, 규제 등의 반작용이 있게 되자 창의의 트임을 없애기 위한 가장 적절한 구성법으로서 양 옆에 무를 붙이고 두루막은 형태를 취한 것이 바로 주의인 것이다. 따라서 주의는 형태면에서는 옆막힘형 직령과 동일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동일물이라기 보다 위와 같은 변화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옆자락이 없는 직령과 창의, 주의의 형

태 관련성과 그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주의는 창의에서 비롯되고, 창의는 옆트임형 직령에서 비롯되고, 옆트임형 직령은 옆막힘형 직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결국 창의와 주의의 모체는 옆막힘형 직령이라고 생각된다.

2. 유형 분류

위의 논의를 토대로 조선시대 직령의 유형을 옆자락의 유무에 따라 크게 옆자락이 있는 직령과 옆자락이 없는 직령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옆자락이 있는 직령은 옆자락의 위치에 따라 안주름형, 안뺨주름형, 밖주름형, 뒤젓힘형으로 분류된다.¹²⁾ 안주름형은 옆자락 전체가 옆선의 안으로 들어가 주름으로 처리된 유형이고, 안뺨주름형은 옆자락의 일부는 옆선의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겨드랑이 위치까지 접혀 들어간 유형이고, 밖주름형은 옆자락 전체가 옆선의 밖으로 나와 주름으로 처리된 유형이며, 뒤젓힘형은 옆자락이 뒤로 넘어간 유형이다. 옆자락이 없는 직령은 옆트임의 유무에 따라 옆막힘형과 옆트임형으로 분류된다.

<그림 1>은 조선시대 직령의 유형을 분류하고 옆자락과 무의 모양을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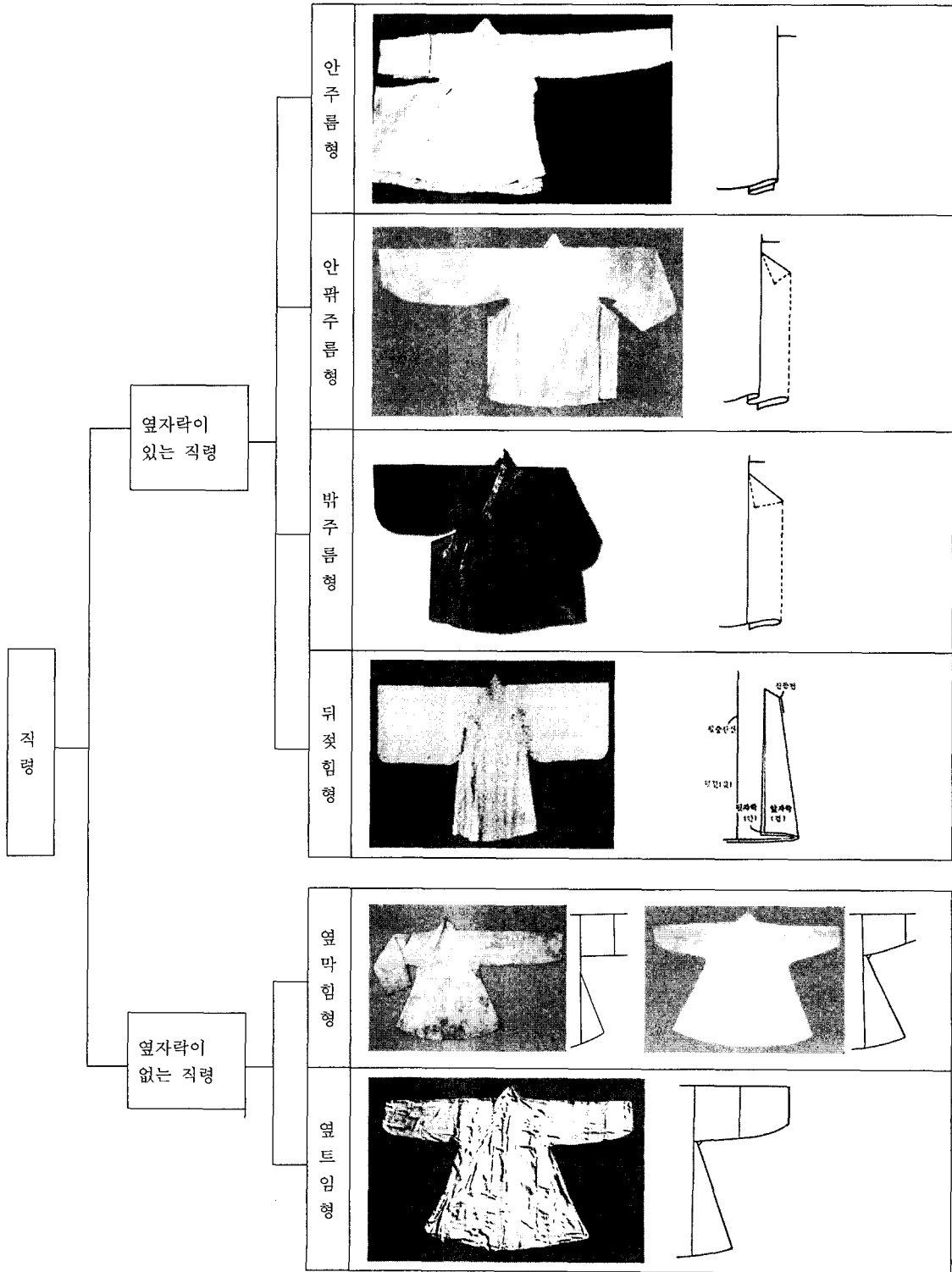
1) 옆자락이 있는 직령

(1) 안주름형 직령

안주름형 직령은 고려말의 명신 李兆年(1269~1343)(그림 2)과 그의 아들 李穡의 초상화(그림 3), 그리고 麗末鮮初의 길재(1353~1419)의 초상화(그림 4)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 3, 4)에 보이는 직령은 이중깃에 重裾形이고 窄袖形이며, 양 옆에 트임이 있고 주름이 길의 안쪽에 처리되어 있는데 길재의 초상화에는 안주름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조년과 길재의 직령은 홍색으로 허리에 붉은색의 가는 띠가 매어져 있고, 이포의 직령은 暗紫色으로 허리에 帶가 있어 직령에는 포백대와 대가 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土紅은 上色으로서 특히 토홍 직령이 사대부들에게 널리 선호되었는데¹³⁾



<그림 1> 조선시대 직령의 유형 분류



<그림 2> 이조년像
(人物畫, 도판 100)



<그림 3> 이포像
(人物畫, 도판 101)



<그림 4> 길재像
(김문숙, 고려시대 원간섭기 일반복식의 변천, p.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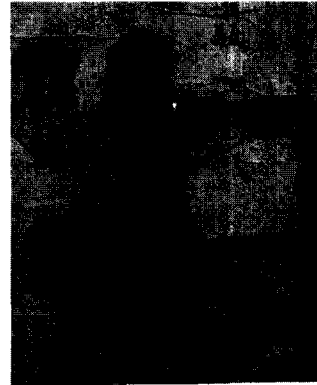
이조년과 길재가 입고 있는 홍색 직령이 바로 그 예라고 생각된다.

(2) 안팎주름형 직령

안팎주름형의 직령은 申末舟契會圖(1499) 중의 吳惟敬像(그림 5)에서 볼 수 있다.

오유경이 입고 있는 직령은 녹색계로서 일반깃에 중거형이고 착수형이며, 허리에 暗紫色의 띠가 매어져 있다. 띠는 전술한 이조년과 길재의 것과는 달리 폭이 넓어 허리에 매었을 때 여러 겹의 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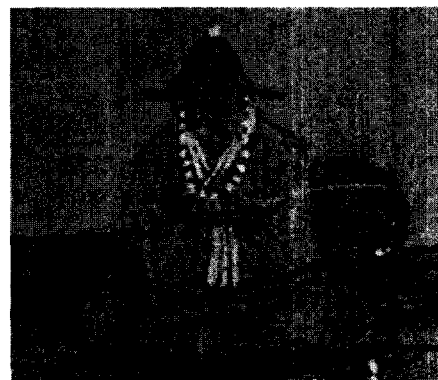
이 생긴다. 초록색 紬로 만든 직령은 임란전에 왕자군과 나이든 재상에게만 착용될 수 있었는데¹⁴⁾ 오유경이 입고 있는 녹색 직령이 그 예라고 생각된다.



<그림 5> 오유경像(韓國服飾, 제10호, p. 7)

(3) 밖주름형 직령

밖주름형 직령은 戶曹郎官契會圖(1550년경에 그려짐) 중의 중앙에 앉은 사람(그림 6)에게서 볼 수 있다. 옆자락이 옆선 밖으로 나와 있어 안팎주름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16세기 후반에 밖주름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계획도의 제작연대가 1550년경임을 고려하여 밖주름형으로 보았다.



<그림 6> 戶曹郎官契會圖(東洋의 名畫(1), 도판 61)

(4) 뒤젓힘형 직령

뒤젓힘형 직령은 조선시대 통신사행렬도와 조선 후기 회화에서 볼 수 있다.

1711년에 그려진 <朝鮮國書捧呈行列圖> 중의 寫字官이 직령을 입고 있고(그림 7), 1811년에 그려진 <朝鮮人來聘大行列畧圖(1811)> 중의 印信陪軍官, 製述官, 吸唱, 上判事 등이 역시 직령을 입고 있다(그림 8).



<그림 7> 寫字官의 직령 착용모습
(大系 朝鮮通信使. 第4卷. p. 25)



<그림 8> 製述官, 上判事의 직령 착용모습
(大系 朝鮮通信使. 第8卷. p. 36)

사자관, 제술관, 상판사, 흡창 등은 실무 담당자들로서 소매가 넓고 긴 직령을 입고 세조대를 두르고 있다. 직령의 색상은 녹색, 청색, 연한 청색, 황색 등으로 다양하다.

1700년대 중엽의 <젓짜는 어미소와 송아지>를 보면 지방의 하급관리¹⁵⁾가 갓을 쓰고 뒤젓힘형 직령을 입고 있다(그림 9).



<그림 9> 하급관리의 직령 착용 모습(풍속화(하나). p. 57)

2) 옆자락이 없는 직령

옆자락이 없는 직령은 강희안(1419~1464)의 <高士渡橋圖>와 신잠(1491~1554)의 <探梅> 중의 동자의 의복에서 볼 수 있다(그림 10).



<그림 10> 童子의 직령 착용모습(東洋의 名畫(1). 도판 15 ; 韓國美術(2). 도판 70)

동자가 입은 직령은 소매가 짧고 좁고 옷길이가 무릎정도이며 허리에 띠가 묶여 있는 매우 간소한 형태로서 활동하는데 적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회화자료이므로 삼각형의 무와 옆트임의 유무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지만 의복 구성상 아래자락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옆에 무릎 달거나 트임을 주어야 하므로 위의 두 회화자료를 옆자락이 없는 직령으로 보고자 한다.

Ⅲ. 특성 고찰

1. 유형별 특성

직령의 특성을 유형별, 시기별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실증고찰 항목은 <표 2>와 같다.

1) 옆자락이 있는 직령

(1) 안주름형 직령

<표 2> 직령의 실증고찰 항목

구성양식			앞·뒤 길이차		깃양식*		깃모양			깃양식		소매모양**		옆자락 모양		무모양		당		옆트임		여밌방법					
홀	겹	숨	전단후장형	전후동장형	이중깃	일반깃	반목판형칼깃	칼깃	당코형목판깃	반달깃	이중깃	단깃	착수형	콩각지형	광수형	사각형	사다리꼴형	삼각형	사다리꼴형	有	無	無	부분	전체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간판부착형

* 깃의 가운데에 바느질선이 있는 것을 이중깃으로, 없는 것을 일반깃으로 분류한다.
 ** 착수형은 배래선이 진동점을 넘지 않는 형이고, 콩각지형과 광수형은 배래선이 진동점 아래로 내려오는데 진동부위가 파지지 않은 것을 콩각지형이라고 하고, 진동부위가 파진 것을 광수형이라고 한다. 콩각지형은 소매배래가 진동점 아래로 완만하게 곡선져 내려간 모양이 콩각지의 모양과 유사하여 편의상 명명한 것이다.⁶⁾

<표 3> 안주름형 직령의 형태 비교표

시기구분		제1기	제2기	
No		1	2	3
착용자		신연식	채무역	제주고씨 여우(父)·경행(子)
생물연대		1519~1582	1537~1594	父:1560~1630추정, 子:1590~? 추정
관직명		靖陵參奉(종9품:문관)	世子翊衛司(정5품:무관)	兵曹參判(종2품:문관)
구성양식		홀	숨	홀
채질(안)		무명	綿布(綿布)	모시
색상(안)		-	갈색	소색
앞뒤 길이차		4(前短後長形)	0(前後同長形)	13(前知後長形)
앞길이/뒷길이		131 / 135	(113)	119 / 132
화장		119.5	128	137
진동		41	40	..
뒤폭		66	76	71
깃	나비(내/외)	-	17.5(9.5/8)	-
	양식	일반깃	이중깃	일반깃
	모양	칼깃	반목판형 칼깃	칼깃
깃양식	겉깃	이중깃	이중깃	이중깃
	안깃	단깃	단깃	단깃
여밌폭비*	겉깃(상/하)	100 / 160.0	88.9 / 142.1	100 / 164.8
	안깃(상/하)	10.0 / 65.7	-	10.2 / 57.8
옆자락	나비	34(1폭)+7=41	40(1폭)+8=48	34.5(1폭)+13.5=48
	주름수**	1	2	2
	트임 앞(뒤)	부분:29(33)	전체:64	전체:66(79)
소매	모양	콩각지형	착수형	착수형
	소매통비***	114.6	75	67.4
여밌방법		직접부착형 끈고름(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1쌍)	-
소장처		석주선기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석주선기념박물관
출처		韓國服飾 제17호, 1999, p.66.	충북대학교, 調査報告 제8책, 1983, p.47.	韓國服飾 제15호, 1997, p.92.

* 여밌폭비는 뒤폭에 대한 앞나비의 비로 계산하였다. 여밌폭비(%) = $\frac{\text{앞나비}}{\text{뒤폭}/2} \times 100$
 ** 주름수는 앞길의 왼쪽 옆자락에만 잡은 주름수이다.
 *** 소매통비는 착수형인 경우 진동에 대한 수구의 비로, 콩각지형과 광수형인 경우 진동에 대한 소매통이 가장 넓은 부위(최대소매통)의 비로 계산하였다. 소매통비(%) = $\frac{\text{수구}}{\text{진동}} \times 100$ 또는 소매통비(%) = $\frac{\text{최대소매통}}{\text{진동}} \times 100$

안주름형 직령의 현존 유물은 총 3점이며, 대표적인 형태 특성을 고찰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안주름형 직령은 문·무관에게 공통으로 착용되었다.

구성양식은 홑(2점)과 솜(1점)이다.

앞뒤의 길이차이를 보면 전단후장형과 전후동장형이 병용되었으며 전단후장형의 경우 길이차이가 제1기에는 4cm였으나 제2기에는 13cm로 증가되었다.

깃양식은 이중깃(1점)과 일반깃(2점)이 병용되었고, 깃모양은 이중깃은 반목판형 칼깃이고 일반깃은 칼깃이다. 겹설편은 모두 이중설편이고 여밈폭비가 위는 평균 96.3%, 아래는 평균 155.6%로서 위는 거의 옆선에 닿고 아래는 옆선을 지나므로 여밈폭이 깊은 重裱形이다. 안설편은 모두 단설편이다. 여밈방법은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이 주로 사용되었다.

옆자락 나비는 1폭에 약간의 치수를 더했으며 옆자락에 잡은 주름수는 1개와 2개가 병용되었다. 옆트임은 옆자락의 1/2정도만 트인 경우, 전체가 트인 경우 등 일정하지 않다.

소매모양은 착수형(2점)과 콩각지형(1점)이 병용되었으며, 소매통비를 보면 착수형은 67~75% 정도로 배래선이 진동점에서 수구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며 콩각지형은 114.6%로 배래선이 진동점 아래로 드리워져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2) 안팎주름형 직령

안팎주름형 직령의 현존 유물은 총 12점이며, 대표적인 형태 특성을 고찰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안팎주름형 직령은 문·무관에게 공통으로 착용되었으나 주로 문관(8점)에게

<표 4> 안팎주름형 직령의 형태 비교표

시기구분		제 1 기					
No		1	2	3	4	5	6
착용자		이계윤	김홍조	김홍조	홍계강	이인손	고운
생물연대		1431~1489	1461~1528	1461~1528	1450년대 추정	1477~1543	1479~1530
관직명		金滿縣令 (정6품·문관)	掌隸院判決事 (정3품·문관)	掌隸院判決事 (정3품·문관)	兵曹參議 (정3품·문관)	-	刑曹佐郎 (정5품·문관)
구성양식		겹	홑	홑	겹	겹	솜
재질(안)		明紬(明紬)	면포	면포	明紬(明紬)	明紬(明紬)	무명(무명)
색상(안)		-	-	-	鴉青(紺色)	갈색	녹색
앞뒤 길이차		3(前短後長形)	0(前後同長形)	0(前後同長形)	4(前短後長形)	4(前短後長形)	3(前短後長形)
앞길이/뒷길이		130 / 133	152	149	134 / 138	144 / 148	130 / 133
화장		128	127	120	134.5	130	120
깃	나비(내/외)	-	13.5(7/6.5)	12(6/6)	15(8/7)	15(7/8)	12
	양식	이중깃	이중깃	이중깃	이중깃	이중깃	이중깃
	모양	반목판형칼깃	반목판형칼깃	반목판형칼깃	반목판형칼깃	반목판형칼깃	반목판형칼깃
설편양식	겹설편	이중설편	이중설편	이중설편	이중설편	이중설편	이중설편
	안설편	단설편	단설편	단설편	단설편	단설편	단설편
여밈폭비	겹설편(상/하)	100 / 169.4	98.5 / 192.9	- / -	94.3 / 165.7	95.7 / 175.4	72.7 / 180.3
	안설편(상/하)	17.6 / 77.8	13.2 / 73.5	12.1 / 75.8	10.0 / 71.4	17.4 / 84.1	19.7 / 83.3
옆자락	나비	36(1폭)+?	32	35(1폭)	34(1폭)+6=40	35(1폭)+7.5=42.5	37(1폭)
	주름(내/외)	- / 20	3.5 / 12.5	3 / 14.5	5 / 5	5 / 16.25	5 / 13.5
	주름수(내/외)	1 / 1	1 / 1	1 / 1	1 / 3	1 / 1	1 / 1
	트임	전체	전체: 73.5	0	전체: 80(84)	전체: 79.5(81.5)	0
소매	모양	착수형(32)	착수형(32)	착수형(34)	콩각지형	착수형(38)	착수형(33.5)
	소매통비*	64	72.7	79.1	120.5	77.6	78.8
여밈방법		-	간접부착형	-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	끈고름 2쌍	-	끈고름 1쌍	끈고름 2쌍	끈고름 2쌍
소장처		석주선기념박물관	영주시	영주시	석주선기념박물관	전의이씨화수회	광주민속박물관
출처		韓國服飾 제11호, 1993, p.81.	判決事金欽祖先生合葬墓發掘調査報告書, 1998, p.250.	判決事金欽祖先生合葬墓發掘調査報告書, 1998, p.251.	박성실 논문, 1992, p.356.	권영숙 교수 자료제공	霞川 高雲 繪도유물, 2000, p.88.

시기구분		제 1 기			제 2 기		
No		7	8	9	11	10	12
착용자		정은	정응두	이옥형	송문창	이용태	이지원
생물연대		1481~1538	1508~1572	? ~ 1585	1554~1594	(1556~1586)	1616~1666
관직명		通禮院贊儀 (정5품:문관)	判中樞府事	(정3품:무관)	進士 (문관)	-	陽智縣監 (정6품:문관)
구성양식		숨	겹	숨	숨	홀	겹(내:타지섬)
재질(안)		明袖(明袖)	明袖(明細)	明袖(明袖)	교직물(明袖)	마포	明袖(明袖)
색상(안)		짙은갈색	鴉靑(紺色)	褐色(綠色)	짙은갈색	-	-
앞뒤 길이차		4(前短後長形)	6(前短後長形)	9(前短後長形)	0(前後同長形)	0(前後同長形)	11(前短後長形)
앞길이/뒷길이		139 / 143	117 / 123	112 / 121	113	114/113	125(136)
화장		132.5	132.5	126	96	126	127
깃	나비(내/외)	-	14(7/7)	-	11	15	15(-)
	양식	이중깃	이중깃	이중깃	일반깃	일반깃	이중깃
	모양	반목판형칼깃	칼깃	-	칼깃	칼깃	반목판형칼깃
선풀양식	겉선풀	이중선풀	이중선풀	-	이중선풀	이중선풀	이중선풀
	안선풀	단선풀	단선풀	단선풀	단선풀	단선풀	단선풀
여밈폭비	겉선풀(상/하)	90 / 180.6	92.6 / 153.5	-	88.2 / 150	77.5 / 133.7	94.1 / 178.1
	안선풀(상/하)	11.3 / 76.1	11.3 / 56.3	40.5 / 77.8	23.5 / 82.4	18 / 64	18 / 65.6
옆자락	나비	34(1폭)+15.5 =49.5	37(1폭) +30=67	36(1폭) +24=60	34(1폭)+8=42	38(1폭) +10=48	34+?
	주름(내/외)	- / -	11 / 11	5 / 25	4 / 17	4.5 / 19.5	- / 17
	주름수(내/외)	1 / 1	1 / 1	1 / 1	1 / 1	1 / 1	1 / 1
소매	트임	부분: 23(27)	부분: 33(36)	부분: 32(41)	부분: 48	전체: 65.5	-
	모양	착수형(28)	착수형(31)	착수형(34)	콩각지형	콩각지형	착수형(30)
소매통비*		62.2	72.9	85	121.6	111.1	67.4
여밈방법		-	직접부착형	-	간접부착형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소장처		석주선기념 박물관	석주선기념 박물관	석주선기념 박물관	한국전통복식 연구소	안동대학교 박물관	석주선기념 박물관
출처		韓國服飾 제16호, 1998, p.69.	韓國服飾 제9호, 1991, p.146.	박성실 논문, 1992, p.245.	권영숙 교수 자료제공	안동대학교박 물관총서(14), 2000, p.296	韓國服飾 제10호, 1992, p.130.

착용되었다.

구성양식은 홀(3점), 겹(5점), 숨(4점)이다. 홀의 경우 면포, 마포가 사용되었고 겹과 숨의 경우 명주가 사용되었다. 이지원의 명주 겹직령에는 타지섬이 들어 있어 특징적이다.¹⁷⁾

앞뒤의 길이차이를 보면 전단후장형(8점)과 전후동장형(4점)이 병용되었으며 전단후장형인 경우 길이 차이가 3cm, 4cm, 6cm, 9cm, 11cm로 제2기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

깃양식은 2점이 일반깃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중깃이며, 깃모양은 이중깃은 반목판형 칼깃이고 일반깃은 칼깃이다. 겉선풀은 모두 중거형의 이중선풀이고, 안선풀은 모두 단선풀이다. 여밈방법은 직접부착형 또는 간접부착형 끈고름 1쌍 또는 2쌍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옆자락 나비는 1폭에 약간의 치수를 더했으며

옆자락에 잡은 주름수는 옆선의 안에 1개, 밖에 1개가 일반적이나 흥계강의 직령은 옆선의 안에 1개, 밖에 3개가 있어 차이를 보인다. 옆자락에 주름잡을 때 안주름분의 비율은 옆자락 전체 나비의 20% 정도이다.¹⁸⁾

옆트임은 트이지 않은 경우, 일부가 트인 경우, 전체가 트인 경우 등 다양하다. 특히 김흥조와 고운의 직령은 옆트임이 없는데 이는 현존 유물 중 동일한 옆자락 양식을 지닌 답호나 단령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이다. 한편 옆자락에 트임을 부분적으로 줄 경우 앞·뒤 옆자락의 가장자리를 각각 따로 완성하여 가장자리의 일부를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정은과 송문창의 직령은 앞·뒤의 옆자락 사이에 1/2폭 또는 1폭 정도를 더 잇고 이것을 앞길과 뒷길에 각각 연결하여 옆이 두루막히게 한 다음 연결된 옆자락(앞자락+

(½폭 또는 1폭)+뒷자락]의 ½지점에서 트임을 준 것이 독특하다.

소매모양은 두 점이 콩각지형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착수형이다.

(3) 박주름형 직령

박주름형 직령의 현존 유물은 총 6점이며, 대표적 형태 특성을 고찰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박주름형 직령은 문관에게 착용된 경우만 고찰되어 단정짓기가 어렵지만 전술한 안주름형과 안팎주름형 직령에서와 같이 무관에게도 착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성양식은 홀(4점)과 솜(2점)이다. 홀의 경우

무명, 모시, 삼베 등이 사용되었고 솜의 경우 면포, 명주 등이 사용되었다.

앞뒤의 길이차이는 없어 모두 전후동장형이다.

깃양식은 두 점이 이중깃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깃이며, 깃모양은 일반깃은 칼깃이고 이중깃은 반목판형 칼깃이다. 겹설편은 모두 중거형의 이중설편이고, 안설편은 모두 단설편이다. 여밈방법은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이 주로 사용되었다.

옆자락의 나비는 1폭에 약간의 치수를 더했으며 옆자락에 잡은 주름수는 1개가 일반적이네 제주고씨의 직령은 2개이다. 옆트임은 전체가 트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봉합되었다 하더라도 옆자락의 위에서 5cm정도에 불과하다.

<표 5> 박주름형 직령의 형태 비교표

시기구분	제2기					
	No	1	2	3	4	5
착용자	정휴복	정휴복	이연웅	이용태	제주고씨 고여우(父),고경행(子)	홍직령
생물연대	1529~1604	1529~1604	중종~선조추정	1556~1586	1560~1640 추정	임란전후 추정
관직명	郡守(종4품:문관)	郡守(종4품:문관)	-	-	兵曹參判(종2품:문관)	-
구성양식	솜	홀	홀	솜	홀	홀
재질(안)	명주(명주)	무명	모시	면포	삼베	삼베
색상	-	-	소색	질은갈색	소색	소색
앞뒤 길이차	0(前後同長)	0(前後同長)	0(前後同長)	0(前後同長)	0(前後同長)	0(前後同長)
앞길이/뒷길이	121	126	116	120/121	122.5	129
화장	110.5	-	(113.5)	119.5	124.5	-
진동	-	-	45	46	41	33
뒷폭	68	78	71	89	76	58
깃	나비	-	-	14	15	-
	양식	이중깃	이중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설편	모양	반목판형 칼깃	반목판형 칼깃	-	칼깃	칼깃
	겹설편	이중설편	이중설편	-	이중설편	이중설편
안설편	안설편	단설편	단설편	단설편	단설편	단설편
	안설편(상/하)	103.3 / 173.3	92.1 / 161.9	-	78.7 / 140.4	78.7 / 143.4
여밈폭비	안설편(상/하)	10 / 76.7	12.7 / 95.2	12.1 / 75.6	15.7 / 69.7	9.2 / 63.2
	나비	34(1폭)	39(1폭) +19.5=58.5	35.5(1폭) +17=52.5	37(1폭)+6=43	34
옆자락	주름수	1	1	1	1	2
	트임(뒤)	전체	전체	전체(74)	부분(62-24.5=37.5)	전체(68)
소매	모양	착수형(22.5)	콩각지형	평수형	콩각지형	콩각지형
	소매통비*	60.8	120	115.6	110	-
여밈방법	-	-	-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
	-	-	-	끈고름 1쌍	끈고름 1쌍	-
소장처	석주선기념박물관	석주선기념박물관	석주선기념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석주선기념박물관	광주민속박물관
출처	韓國服飾 제7호, 1989, p.136.	韓國服飾 제7호, 1989, p.141.	박성실논문, 1992, p.278.	안동대학교박물관 총서(14), 2000, p.294.	韓國服飾 제15호, 1997, p.92.	권영숙 교수 자료제공

소매모양은 공간지형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착수형과 광수형이 각각 1점씩 나타난다.

(4) 뒤젓힘형 직령

뒤젓힘형 직령의 현존 유물은 총 9점이며, 대표적인 형태 특성을 고찰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뒤젓힘형 직령은 문·무관에 게 착용되다가 국말에 하급관리와 서민들에게도 착용되었는데 전자는 주로 단령의 받침옷으로, 후자는 겹옷으로 착용되었다. 단령의 받침옷으로 착용된 경우 김위와 김덕원의 것은 시접이 안으로 되어 있고 이 보다 이후에 제작된 홍우협과 홍감보의 것은 시접이 겹으로 나와 있다. 이는 직령이 원래

단령과는 별도로 제작되어 각각의 홑옷으로 착용되다가 결국 단령의 안감으로 남게 된 것임을 의미한다.¹⁹⁾

구성양식은 홑(8점)과 겹(1점)이며 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홑의 경우 상류층에는 운문단, 삼팔주, 명주 등 견직물이, 하류층에는 마포, 모시 등이 사용되어 신분별 차이를 보인다.

앞뒤의 길이차이는 없어 모두 전후동장형이다.

깃양식은 모두 일반깃에 반달깃이다. 겹섶은 대부분 단섶이고 여밈폭비가 제2기에는 평균 91.2%이므로 증거형이지만 제3기에는 67%, 60%, 40%로 점점 줄어든다. 이는 겹섶이 단섶화되면서 초래되는 구성법의 변화이며 이에 따라 여밈방법 또한

<표 6> 뒤젓힘형 직령의 형태 비교표

시기구분		제2기					제3기				
No		1	2	3	4	5	6	7	8	9	
착용자		김위	김위	김덕원	홍우협	홍감보	-	-	-	서민	
생물연대		1618 (임란후추정)	1618 (임란후추정)	1634~1704	1655~1691	1699~1763					
관직명		縣監 (종6품: 문관)	縣監 (종6품: 문관)	議政 (정1품: 문관)	兵馬回鑾節 制使(정3품: 무관)	兵馬回鑾節 制使(정3품: 무관)	-	-	-	-	
구성양식 (시접방향)		홑(안) (단령 裏衣)	겹	홑(안) (단령 裏衣)	홑(겹) (단령 裏衣)	홑(겹) (단령 裏衣)	홑(안) (겹옷)	홑(안) (겹옷)	홑(안) (겹옷)	홑(안) (겹옷)	
재질(안)		高紋緞	명주	七寶雲紋緞	명주	三八紬	생모시(寧布)	모시	모시	마포	
색상		황갈색	갈색	소색	진한갈색	-	백색	홍색	홍색	소색	
앞뒤 길이비		0 (前後 同長形)	0 (前後 同長形)	0 (前後 同長形)	0 (前後 同長形)	0 (前後 同長形)	0 (前後 同長形)	0 (前後 同長形)	0 (前後 同長形)	0 (前後 同長形)	
옷길이		135	130	129	125	-	123	115	116	128.5	
화장		110.5	105	126	127	117	92	76.5	70	98	
깃	나비	11	10	13.2	11.5	-	11.5	8	8.8	9.3	
	양식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모양	반달깃	반달깃	반달깃	반달깃	반달깃	반달깃	반달깃	반달깃	반달깃	반달깃	
	단섶	단섶	이중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안섶	안섶	단섶	단섶	단섶	이중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안섶	단섶	단섶	단섶	이중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여밈 폭비	겹섶 (상/하)	88.5 / 188.5	93.9 / 190.3	66.7 / 145.5	59.7 / 139.9	-	57.4 / 123.4	40.4 / 78.9	43.9 / 77.6	-	
	안섶(상/하)	19.2 / 111.5	17.7 / 93.5	28.6 / 80.4	17.2 / 84.7	-	53.2 / 97.9	25.7 / 58.7	32.9 / 70.6	-	
열차 락	나 비	상 (뒤)	29(29)	28*10-38(35)	-	-	-	11.5	9	9	-
		하 (뒤)	14*29=43(29)	35*10=45(35)	-	-	-	39	35.5	32.4	-
	주름수	1	1	0	0	0	0	0	0	0	
	트임(뒤)	전체(100)	전체(89)	-	전체(96)	-	전체(82)	부분(61)	부분(67.5)	부분	
소매	모양	광수형(40.5)	광수형(40)	광수형(66.5)	광수형(6)	광수형(69)	광수형(58)	광수형(40)	착수형(27)	광수형(50)	
	소매폭비*	127.8(9.2)	121.9(7)	195.6(32.5)	-	200	175.8(25)	148.1(13)	81.3(5.6)	181.8(-)	
여밈 방법	직접부착형	-	-	직접부착형	無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관고름 1쌍	-	-	고름 1쌍 (5.6*57)	-	고름 1쌍	고름 1쌍 (7*82)	고름 1쌍 (7*92)	고름 1쌍 (7.2*82.4)	고름 1쌍 (5.6*97)	
소장처	충북대학교 박물관	충북대학교 박물관	김재호	충북대학교 박물관	석주선기념 박물관	창덕궁 박물관	창덕궁 박물관	창덕궁 박물관	고부남		
출처	충북대학교 調査報告 제8회, 1983, p.44.	충북대학교 調査報告 제8회, 1983, p.43.	韓國傳統服 飾史研究, 1986, p.285.	朝鮮時代代 服飾研究, 1999, p.92.	韓國服飾 제13호, p.195, p.64.	김미자 논문, 1981, p.233.	김미자 논문, 1981, p.233.	김미자 논문, 1981, p.233.	韓國傳統服 飾史研究, 1986, p.286~287.		

좁고 짧은 끈고름에서 넓고 긴 고름으로 변화된다. 안설피 또한 대부분 단설피이다.

옆자락의 양식은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박주름형과 같이 앞·뒤의 옆자락에 각각 주름을 잡은 후 이를 뒤로 넘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앞·뒤의 옆자락을 주름없이 합쳐들고 바로 뒤로 넘긴 경우이다. 김위의 직령 2점은 전자에 해당되고, 이후의 직령 유물들은 후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령의 옆자락은 17세기 전반에 박주름형에서 뒤젓힘형으로 변화되고 17세기 후반부터는 옆자락에 주름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옆자락 양식의 변화는 옆자락의 모양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즉 뒤젓힘형의 옆자락모양은 모두 사다리꼴형으로서 안주름형, 안뺨주름형, 박주름형이 사각형인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와같이 옆자락 모양이 사각형에서 사다리꼴형으로 변화되는 것은 옆자락이 뒤로 넘어감으로 인해 발생

되는 앞길 아랫자락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한 구성법의 변화로서 아랫자락에 여유를 주고 활동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옆자락은 제2기에는 뒷길에 고정되지 않지만 제3기에는 매듭단추나 실로 고정된다.

소매모양은 광수형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착수형이 1점 나타난다.

2) 옆자락이 없는 직령

(1) 옆막힘형 직령

옆막힘형 직령의 현존 유물은 총 8점이며, 대표적인 형태 특성을 고찰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옆막힘형 직령은 주로 문관들에게 착용되었다.

구성양식은 총 8점 중 홑은 1점 뿐이고 모두 겹, 솜, 누비이다. 겹과 솜의 경우 면포와 명주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옆막힘형 직령은 주로 겨울철 방한

<표 7> 옆막힘형 직령의 형태 비교표

시기구분	제2기							
	1	2	3	4	5	6	7	8
No	1	2	3	4	5	6	7	8
착용자	고운	고어우	김덕령1	김덕령2	전막장군	정양우	정양우	홍희준
생물연대	1479~1530	1560~1640	1567~1596	1567~1596	임관직후	1574~1647	1574~1647	1761~1841
관직명	刑曹佐郎 (정5품·문관)	兵曹參判 (종2품·문관)	의병장 虎翼將軍	의병장 虎翼將軍	-	縣監 (종6품·문관)	縣監 (종6품·문관)	吏曹判書 (정2품·문관)
구성양식	솜	겹	솜누비	겹	솜누비	겹	솜	홑
재질(안)	무명(무명)	무명(무명)	무명(무명)	무명(무명)	명주(명주)	명주(명주)	명주(명주)	三八紬
색상	소색		백색	백색	소색			
웃김이	107	96	106	103	90	137	125	120
화장	117	93.5	83	86	94	120	114.5	103
깃	나비	13	-	10.5	11.5	10	-	-
	양식	이중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설양식	모양	반목판형칼깃	칼깃	칼깃	칼깃	칼깃	칼깃	반달깃
	깃설피	이중설피	이중설피	이중설피	이중설피	단설피	단설피	단설피
여밈폭비	안설피(상/하)	77.4/185.5	88.7/146.8	61.1/145.8	60.8/148.6	44.1/111.8	50/145	52.4/123.8
	안설피(상/하)	22.6/85.5	17.4/61.3	5.6/55.6	8.1/54.1	21.8/78.8	25/105	21/85.7
무	모양	삼각형	삼각형	사다리꼴형	사다리꼴형	사다리꼴형	삼각형	삼각형
	당 有無	無	有	有	有	無	無	無
소매	나비	22	26.5	28	29	13	-	17.5
	옆선평비		85.5	89.3	86.2	50	86	85.7
소매	모양	착수형	착수형	착수형	착수형	착수형	광각지형	광각지형
	소매동비*	80	83.3	52.9	78	83.3	136.4	133.3
여밈방법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끈고름1쌍	끈고름1쌍	끈고름1쌍	-	끈고름1쌍	끈고름1쌍	
소장처	광주민속 박물관	석주선기념 박물관	충장사	충장사	충북대학교 박물관	석주선기념 박물관	석주선기념 박물관	석주선기념 박물관
출처	雲川高雲 출토유물, p.85	韓國服飾 제15호, 1997, p.93	권영숙 교수 자료제공	권영숙 교수 자료제공	충북대학교 調査報告 제8 책, 1983, p.98	韓國服飾 제8호, 1990, p.93	韓國服飾 제8호, 1990, p.94	韓國服飾 제12호, 1994, p.134

용 포제로 사용된 듯하다.

깃양식은 1점이 이중깃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깃이며, 깃모양은 이중깃은 반목판형 칼깃이고 일반깃은 1점이 반달깃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칼깃이다.

겉선은 16세기 후반까지 이중선이었고 17세기 전반부터 단선이며, 여밈폭비는 이중선의 경우 위가 평균 72%, 아래가 평균 156.7%이므로 증거형이지만 단선의 경우 위가 평균 45.5%, 아래가 평균 130.8%이므로 여밈정도가 얇다. 안선은 모두 단선이다. 여밈방법은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이 사용되었다.

무모양은 소매모양과 상관성을 보이는데, 삼각형의 무는 착수형과 콩각지형에 모두 사용되었으나 사다리꼴형의 무는 착수형에만 사용되었다. 한편 겨드랑 아래에 부착된 襠은 무모양과 상관성을 보이는데 삼각형의 무에는 없고 사다리꼴형의 무

에는 있다.

소매모양은 16세기 후반까지 착수형이고 17세기 전반부터 콩각지형이다가 18세기 후반에는 광수형이다. 최남선은 《朝鮮常識》에서 “근세 향리가 착용하는 직령에는 바로 두루마기에 광수만 단 것 같이 된 것도 있다”²⁰⁾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18세기 후반의 홍희준의 직령이 그 예이다.

(2) 옆트임형 직령

옆트임형 직령의 현존 유물은 총 8점이며, 대표적인 형태 특성을 고찰하면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옆트임형 직령은 주로 왕 이하 문관들에게 착용되었다.

구성양식은 홑은 1점 뿐이고 모두 겹, 솜이다. 겹과 솜의 경우 면포와 명주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옆트임형 직령 역시 전술한 옆막힘형 직령과 같이

<표 8> 옆트임형 직령의 형태 비교표

시기구분		제2기							
No		1	2	3	4	5	6	7	8
작용자		정휴복	정휴복	정휴복	전박장군	전박장군	김위	정양우	광해군
생활연대		1529~1604	1529~1604	1529~1604	임란직후	임란직후	임란후	1574~1647	1608~1624
관직명		郡守 (종4품:문관)	郡守 (종4품:문관)	郡守 (종4품:문관)	-	-	縣監 (종6품:문관)	縣監 (종6품:문관)	왕
구성양식		겹	홑	솜	겹	솜	솜	솜	겹
재질(안)		명주(명주)	삼베	명주(명주)	무명	무명		명주(명주)	雲紋緞
색상					청색	소색			淡青色
옷길이		131	96	118	125	110	109	127	115
화장		99.5	89	97	98	81	111	(117.5)	94
깃	나비	-	-	-	9.5	9	10	-	9.5
	양식	이중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일반깃
깃양식	반목판형칼깃		칼깃	칼깃	칼깃	칼깃	칼깃	칼깃	당코형목판깃
	겉선	이중선	이중선	이중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안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여밈폭비	겉선(상/하)	89.7/148.3	81.8/142.4	73.3/130	70.8/158.3	61.4/150	71.2/159.3	54.7/147.4
안선(상/하)	17.2/58.6	-	20/63.3	22.9/104.2	15.9/95.5		9.5/105.3	-	
	무모양	사다리꼴형	사다리꼴형	사다리꼴형	사다리꼴형	사다리꼴형	사다리꼴형	사다리꼴형	사다리꼴형
무	당有無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나비	-	-	-	21	17.5	-	-	20
	트임	부분(1/2정도)	부분(1/2정도)	부분(1/2정도)	부분(73)	부분(70)	부분(57)		부분(58)
	옆선폭비	75.9	45.5	63.3	75		61.0	78.9	72
소매	모양	착수형	착수형	착수형	콩각지형	콩각지형	콩각지형	콩각지형	콩각지형
	소매통비*	66.7	78.1	62.5	118.5	111.1	121.8	131.6	115.8
여밈방법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직접부착형
				끈고름	끈고름1쌍	끈고름1쌍	끈고름1쌍		끈고름1쌍
소장처		석주선기념박물관	석주선기념박물관	석주선기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석주선기념박물관	해인사
출처		韓國服飾 제7호, 1989, p.140	韓國服飾 제7호, 1989, p.144	韓國服飾 제7호, 1989, p.135	충북대학교, 調査報告 제8책, 1983, p.80	충북대학교, 調査報告 제8책, 1983, p.78	충북대학교, 調査報告 제8책, 1983, p.74	韓國服飾 제8호, 1990, p.101	韓國의服飾, 1982, p.265

겨울철 방한용 포제로 사용된 듯하다.

깃양식은 1점이 이중깃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깃이며, 깃모양은 이중깃은 반목판형칼깃이고 일반깃은 주로 칼깃인데 광해군의 직령은 유일하게 당코형목판깃이다.

질서는 16세기 후반까지 이중설이고 17세기 전반부터 단설이며, 여밈폭비는 이중설의 경우 위가 평균 81.6%, 아래가 평균 140.2%이므로 중거형이지만 단설의 경우 위가 평균 62.1%, 아래가 평균 149.3%이므로 여밈정도가 얇다. 안선은 모두 단설이다. 여밈방법은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이 사용되었다.

무모양은 모두 사다리꼴형이며, 겨드랑이 아래에 모두 뒹이 있다.

소매모양은 16세기 후반까지 착수형이고 17세기 전반부터 콩각지형이다.

2. 시기별 특성

1) 옆자락이 있는 직령

옆자락이 있는 직령 30점을 중심으로 시기별 유형 분포를 나타내면 <표 9>와 같다. 유형 분포를 표시할 때는 착용연대를 적용하였고, 착용연대는

<표 9>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시기별 유형 분포

시기 구분	착용자(생물연대)	연대별 유형 분포				
		1400	1500	1600	1700	1800
제1기	이계윤(1431~1489)	●				
	김홍조(1461~1528)	●				
	홍계강(1450년대)	●				
	이인손(1477~1543)		○			
	고운(1479~1530)		○			
	정온(1481~1538)		○			
	정용두(1508~1572)		○			
	신언식(1519~1582)		●			
이옥형(?~1585)		○				
제2기	정휴복(1529~1604)		①			
	채무역(1537~1594)		①			
	이언웅(중종~선조)		②			
	송문창(1554~1594)		●			
	이응태(1556~1586)		○			
	고여우(1560~1630추정)		②			
	고경행(1590~? 추정)		②			
	홍직령(임란전후 추정)		①			
	김위(임란후 추정)			□*		
이지원(1616~1666)			□			
제3기	김덕원(1634~1704)			□*		
	홍우협(1655~1691)			□*		
	홍감보(1699~1763)				□*	
	백직령					□
	홍직령					□
	마포직령					□

- ● : 안주름형 ○ : 안팎주름형 □ : 뒤깃형
 - ●, ○, □ 도형 안의 숫자는 앞길의 왼쪽 옆자락에만 잡은 주름수이다.
 - *: 단령의 裏衣로 착용된 경우이다.

착용자의 태어난 연도에 30년을 더하였다.

<표 9>를 통해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시기별 유형 분포를 보면, 제1기에는 안주름형, 안팎주름형이 나타나고, 제2기에는 이 두 유형과 함께 16세기 후반에 밝주름형이, 17세기를 전후하여 뒤젓힘형이 각각 출현하여 직령의 모든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3기에는 뒤젓힘형만 나타나고 있다. 위 유형 가운데 안주름형은 출현율도 낮고 뚜렷한 유행시기를 접하지 못하고 있어 단정짓기 어렵지만 고려시대의 포제 유물들이 대부분 안주름형인 것으로 보아²¹⁾ 직령의 유형 중 가장 빨리 유행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에서 시기 변화에 따른 직령의 형태 변천은 주로 옆자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제2기는 옆자락 양식이 변화되는 주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유형별 유행시기는 안주름형, 안팎주름형, 밝주름형, 뒤젓힘형의 순이라고 생각된다.

<표 9>에 의해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유형별·시기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 기초하여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시

기별 출현율을 보면 제1기는 33.3%, 제2기는 4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1, 2기에 직령이 보편적으로 착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3기는 23.3%에 불과한데 이는 임란이후 도포가 출현하고, 영·정조대에 중치막, 도포, 장의, 장의, 주의 등이 편복으로 보편화됨으로써 직령의 사회적 역할이 현저히 위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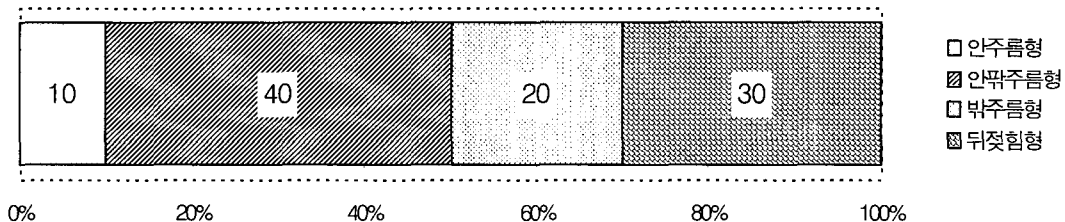
<표 10>에 기초하여 조선시대 전 시기를 통한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유형별 출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에 의하면 전 시기에 있어서의 출현율은 안팎주름형(4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뒤젓힘형(30%), 밝주름형(20%), 안주름형(10%) 순이다. 한편 <표 10>에 기초하여 조선시대 각 시기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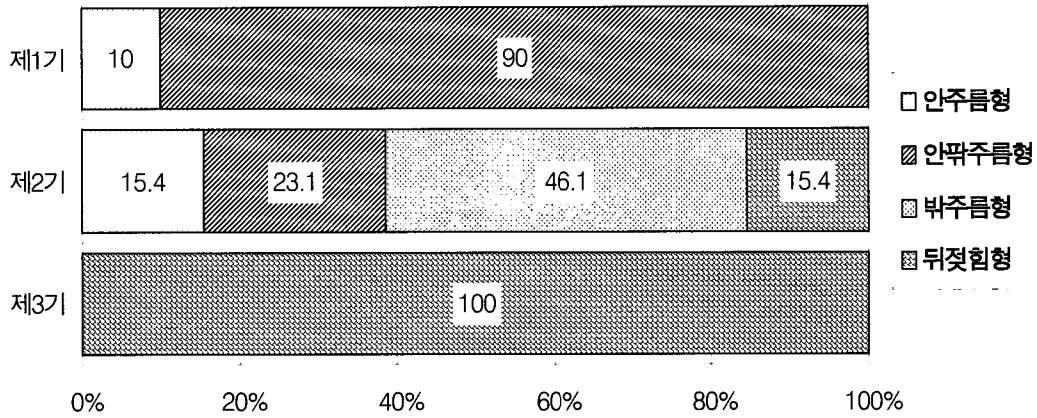
<그림 12>에 의하면 제1기에는 안주름형, 안팎주름형의 두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출현율은 안팎주름형이 90%인데 비해 안주름형은 10%에 불과하다. 제2기에는 위 두 유형과 함께 16세기 후

<표 10>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유형별·시기별 출현율

유형	시기	유물수(출현율:%)			출현율 양상	
		제1기	제2기	제3기		
안주름형		1 (10)	2 (15.4)	無	3 (10)	감소
안팎주름형		9 (90)	3 (23.1)	無	12 (40)	감소
밝주름형		無	6 (46.1)	無	6 (20)	감소
뒤젓힘형		無	2 (15.4)	7 (100)	9 (30)	증가
시기별 소계		10 (33.33)	13 (43.33)	7 (23.33)	30	



<그림 11>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12>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시기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반에 박주름형이, 17세기를 전후하여 뒤젓힘형이 각각 출현함으로써 직령의 모든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 출현율은 박주름형이 46.1%, 안팎주름형이 23.1%, 안주름형, 뒤젓힘형이 각각 15.4%로서 안팎주름형의 출현율이 급격하게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제3기에는 뒤젓힘형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1기는 안주름형과 안팎주름형이 병존하는 가운데 안팎주름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의 안정기'이고, 제2기는 모든 유형이 병존하는 가운데 16세기 후반에 안팎주름형이 박주름형으로, 17세기를 전후하여 박주름형이 다시 뒤젓힘형으로 변화되는 '유형의 생성기 및 혼란기'이며, 제3기는 제1, 2기의 안주름형, 안팎주름형, 박주름형이 모두 뒤젓힘형으로 단일화되는 '유형의 정리기 및 정착기'라고 각각 명명해 볼 수 있다.

<표 11> 옆자락이 없는 직령의 시기별 유형 분포

시기 구분	착용자(생몰연대)	연대별 유형 분포				
		1400	1500	1600	1700	1800
제1기	고운(1479~1530)		●			
제2기	정휴복(1529~1609)		◎			
	고여우(1560~1640)		◎			
	김덕령(임란전후 추정)		◎			
	전박장군(임란전후 추정)		◎			
	김위(임란후)		◎			
	정양우(1574~1647)		◎			
	광해군(1608~1624)		◎			
제3기	홍희준(1761~1841)				●	

- ◎ : 옆막힘형 ● : 옆트임형

2) 옆자락이 없는 직령

옆자락이 없는 직령 16점을 중심으로 시기별 유형 분포를 나타내면 <표 11>과 같다.

<표 11>을 통해 옆자락이 없는 직령의 시기별 유형 분포를 보면, 먼저 제1기와 제3기에는 옆막힘형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직령 유물은 총 16점 중 각각 1점씩으로서 6.3%의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같이 옆트임형 직령이 제1기와 제3기에는 없고 제2기에만 있다는 것은 옆트임형 직령이 제1기의 옆막힘형 직령에서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옆트임형 직령이 17세기 후반에 창의로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2기에는 옆막힘형과 옆트임형이 병용되었는데 유형별 출현율은 옆막힘형이 42.8%, 옆트임형이 57.2%로서 거의 비슷하다. 이 시기의 직령 유물은 총 16점 중 14점으로서 87.5%라는 큰 비중을 나타내는데 이로써 옆자락이 없는 직령은 조선 건국 초부터 착용되었으나 특히 제2기, 즉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널리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언

이상에서 직령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시기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직령은 옆자락의 유무에 따라 옆자락이 있는 직령과 옆자락이 없는 직령으로 분류된다. 옆자락이 있는 직령은 옆자락의 위치에 따라 안주름형, 안팎주름형, 밖주름형, 뒤젓힘형으로 분류된다. 안주름형은 옆자락 전체가 옆선의 안으로 들어가 주름으로 처리된 유형이고, 안팎주름형은 옆자락의 일부는 옆선의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겨드랑이 위치까지 접혀 들어간 유형이고, 밖주름형은 옆자락 전체가 옆선의 밖으로 나와 주름으로 처리된 유형이며, 뒤젓힘형은 옆자락이 뒤로 넘어간 유형이다. 옆자락이 없는 직령은 옆트임의 유무에 따라 옆막힘형과 옆트

임형으로 분류된다.

2. 직령의 유형별 특성을 보면, 옆자락이 있는 직령 중 안주름형은 전단후장형과 전후동장형, 착수형과 콩각지형, 이중깃과 일반깃이 병용되었고 중거형의 이중깃과 끈고름이 사용되었고, 안팎주름형은 전단후장형, 착수형, 이중깃, 중거형의 이중깃, 끈고름이 주로 사용되었고, 밖주름형은 전후동장형, 콩각지형, 일반깃, 중거형의 이중깃, 끈고름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뒤젓힘형은 전후동장형, 광수형, 일반깃, 단깃, 고름이 주로 사용되었다.

옆자락이 없는 직령은 옆막힘형과 옆트임형 모두 중거형의 이중깃에서 여밈이 얇은 단깃으로 변화되고, 착수형에서 콩각지형과 광수형으로 변화되었으며, 일반깃과 끈고름이 주로 사용되었다. 다만 옆막힘형 직령의 무모양은 삼각형과 사다리꼴형이 병용되었는데 이 중 사다리꼴형에만 띠이 있고, 옆트임형 직령의 무모양은 모두 사다리꼴형이고 띠가 있다.

3. 직령의 시기별 특성을 보면,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경우 제1기(조선 건국 초~16세기 전반)는 안주름형과 안팎주름형이 병존하는 가운데 안팎주름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의 안정기’이고, 제2기(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는 모든 유형이 병존하는 가운데 16세기 후반에 안팎주름형이 밖주름형으로, 17세기를 전후하여 밖주름형이 다시 뒤젓힘형으로 변화되는 ‘유형의 생성기 및 혼란기’이며, 제3기(17세기 후반~19세기 말)는 제1, 2기의 안주름형, 안팎주름형, 밖주름형이 모두 뒤젓힘형으로 단일화되는 ‘유형의 정리기 및 정착기’이다. 즉 직령의 유형별 유행시기는 안주름형, 안팎주름형, 밖주름형, 뒤젓힘형의 순이라고 생각된다.

옆자락이 없는 직령의 경우 제1기, 제3기에는 옆막힘형만 나타나는 반면 제2기에는 옆막힘형과 옆트임형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특히 제2기에 널리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옆자락이 없는 직령은 형태면에서 창의, 주의와 유사한데, 이들의 형태 관련성 및 변화과정에 비추어 주의는 창의에서 비롯되고 창의는 옆트임형 직령에서 비롯되며, 옆트임 직령은 옆막힘형 직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곧 옆막힘형 직령이 창의와 주의의 모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金美子 (1981). 直領에 관한 연구. 服飾, 5.
李海英 (1989). 韓國 直領交衿式 袍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金美子 (1995). 우리나라 포(袍)의 종류와 변천.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梁淑鄉 (1996). 朝鮮後期 一般服飾에 關한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朴聖實 (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壬辰倭亂 以前 時期를 中心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인우 (1997). 조선중기 일상복의 구조와 구성 -16·17C 출토복식 중심-. 服飾, 35.
- 3) 李恩珠 (1998).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鄭東愈. <晝永編> 「我東衣服之制 皆前交兩衿 後有垂裾 而團領 直領 則衿之後幅 當脅傍處 外屈重疊作尖耳向背…」;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篇 「...直領의 制가 領 外에는 대체로 團領에 合하고, 특히 특색 있는 『무』의 制에서 兩者가 아주 如 一함은 晝永編에 是함과 같지만...」
- 5) 유희경·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개정판). 서울: 교문사, p. 237; 權瑛淑·李珠英·張賢珠 (1997).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성보학술총서, 1, p. 149.
- 6)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89, 1990, 1994, 1997). 韓國服飾, 7, 8, 12, 15.
충북대학교박물관 (1983). 調查報告, 8.
- 7) 承政院日記 第1377冊 英祖 52年 丙申 3月 望前
- 8) 承政院日記 第1823冊 正祖 24年 庚申 6月 望後
- 9) 정휴복(1529~1604)의 유물 3점, 傳박장군(임란직후)의 유물 2점, 김위(임란후)의 유물 1점, 정양우(1574~1647)의 유물 1점, 광해군(1608~1624)의 유물 1점 등을 참고하였다.
- 10) 김위(임란후)의 유물 6점과 정양우(1574~1669)의 유물 2점을 참고하였다(韓國文化財保護協會(1982). 출토복식·남북. 韓國의 服飾. pp. 274~275;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90). 韓國服飾, 8. pp. 99, 104).
- 11) 崔南善. 앞의 책. p. 120.
- 12) 이은주는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옆자락을 '무'라고 표현하였으며, 무양식을 제1유형의 무(다중 안주름형), 제2유형의 무(대소 안주름형), 제3유형의 무(대형 밖주름형), 제4유형의 무(뒤젓힘 대주름형), 제5유형의 무(뒤젓힘 사다리꼴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은 이은주의 분류방법을 참고로 하되 옆자락의 위치에 중점을 두어 분류하였으며 옆자락에 잡은 주름수는 구성상의 문제로 보았다.
- 13) 金相離. <松窩雜記>
- 14) 李晬光. <芝峰類說> 권3 君道部 法禁
- 15) <젓짜는 어미소와 송아지>는 조영석(1681~1761)이 지방의 현감으로 있을 때 지방 관아에서 벌어진 풍경을 그린 것으로 이태호는 그림 속의 인물들을 30~40대의 하급관료로 보았다(이태호 (1995). 품속화(하나). 서울: 대원사, p. 67).
- 16) 이주영·권영숙 (2000). 조선시대 直領과 관련된 중국의 袍制 -예살과 직신을 중심으로-. 服飾, 50(6). p. 136.
- 17) 高富子·朴聖實 (1992). 서울 下溪洞 出土 文化柳氏 遺物 小考. 韓國服飾, 10. p. 114.
- 18) 김흥조의 직령(21.9%, 17.1%), 이인손의 직령(23.5%), 고운의 직령(27.0%), 이육형의 직령(16.7%), 송문창의 직령(19.0%)을 참고로 한 치수이다.
- 19) 金明淑 (1999). 洪禹協 遺衣를 통해 본 朝鮮時代 17世紀 服飾과 織物. 朝鮮時代服飾研究. 서울: 학연문화사, p. 93.
- 20) 崔南善. 앞의 책.
- 21)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도포형 직령과 답호, 그리고 문수사에 소장되어 있는 답호 등이 안주름형으로 되어 있고, 麗末鮮初의 화화자료 중 이조년과 이포, 길재가 입고 있는 직령이 모두 안주름형으로 되어 있다.
- 22) 李珠英·權瑛淑 (2000). 조선시대 직령(直領)제도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8(2). pp. 105-108.